



광남일보



주간 제 8063 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4월 13일 월요일 (음력 2월 26일)

“안정이나 변화냐”...김영록 vs 민형배, 시도민 선택은



휴일을 맞아 11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주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0일 순천 웃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나 민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영록 캠프

6·3지방선거 D-51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가리는 결선 투표가 12일 시작했다.

14일까지 사흘간 치러지는 이번 결선은 통상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 권력 구도를 사실상 결정짓는 승부로, 권리당원과 시도민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2·8·9·19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압도적인 지역 특성상 이번 경선 결과가 본선 승리와도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시작

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 반영...14일 최종 후보 확정
양 후보 막판까지 표심 다지기...조직 가동·시민 접촉 확대
신정훈·강기정, 김영록 지지 합류...결속력 유지가 승부처

던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민형배·김영록(기호순) 후보 간 결선투표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여론조사 50%가 반영되며 결과는 14일 발표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으로 이어진 만큼, 조직 기반과 여론 확장력을 동시에 확보한 쪽이 유리한 구조다. 권리당원과 시도민의 표심을 얼마나 결집 시키느냐와

함께 여론조사에서 중도층까지 끌어들이는 지가 막판 승부를 가릴 전망이다.

이 같은 구도 속에 양 후보 측은 결선을 앞둔 지난 주말 지역 곳곳을 돌며 막판 표심 다지기에 집중했다.

권리당원 투표를 겨냥한 조직 가동과 함께 시도민 접촉을 확대하며 여론조사 대응에도 공을 들였다.
결선 투표 시작 전날인 11일 공약 발표

와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기도 했으며 민 후보는 무등산 중심시를 찾아 종교계와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또한 현장 접촉을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 과 서부권 성장 전략을 제차 부각하며 지지층 이탈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김 후보는 자신을 지지 선언한 신정훈 국회의원과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다.

아울러, 행정 경험과 통합 운영 역량을 강조하며 중도층 공략에 나서는 동시에, 통합 이후 시정 안정성과 실행력을 앞세워 표심 확장에 집중했다.

또 결선은 20조원 규모 재정 인센티브 활용 방안, 권역별 균형 발전 공약 등 주요

쟁점을 대하는 후보들의 방식도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 모두 산업 구조 전환과 경제 재도약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서다.

경선 레이스 막판 숨 가쁘게 진행된 합동연회를 통한 빅텐트 구축과 탈락 후보 지지층을 끌어안는 외연 확장도 판도 변화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재선 국회의원인 민 후보는 전남 동부권 주자로 경선에 나섰던 주철현 후보와의 1대 1 단일화와 정책 연대에 이어 3인 본경선에서 간발의 차로 고배를 마신 신정훈 후보측 캠프 지도부 일부, 전국구 스타급

정치인들의 공감대를 잇따라 이끌어 내며 외연을 확장했다.

김 후보도 이병훈 호남특위 수석부위원장과의 ‘행정전문가 연대’에 이어 강기정·신정훈 민주당 동지 단일화 세력, 주승용 전 국회 부의장 등 승부처인 전남 동부권 인사들까지 겨냥한 데 이어 5선의 송영길 전 당대표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하며 빅텐트를 구축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결선은 조직 결집과 외연 확장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라며 “연대 효과가 실제 표로 이어질지, 기존 지지층이 얼마나 결속력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민주 광주 북구청장 후보에 신수정...여성 첫 구청장 가능성

함평 이남오·보성 김철우·곡성 조상래·고흥 공영민 선출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17곳 후보 확정...10곳 경선 진행 중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후보에 신수정 후보가 선출됐다.

또한 함평군수 이남오, 보성군수 김철우, 곡성군수 조상래, 고흥군수 공영민 후보 등 전남 4개 단체장 후보도 확정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최근 북구청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투

표 개표 결과 신수정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이로써 신 후보는 광주 첫 여성 구청장 탄생의 가능성을 높게 됐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으며, 4명이 과반을 득표해 후보로 확정됐다.

2명이 경선을 벌인 함평군은 이남오,



광주 북구 신수정, 함평 이남오, 보성 김철우, 곡성 조상래, 고흥 공영민

보성군은 김철우 예비후보가 후보로 결정됐다. 3인 경선을 치른 지역 가운데 곡성군은 조상래, 고흥군은 공영민 예비후보가 후보로 확정됐다.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은 순천, 구례, 영광은 결선을 치른다. 한편, 민주당은 광주·전남 17개 지역의 후보를 확정했다.

이현규·이신하 기자 gnnews1@

전 국민 70%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1인당 10만~60만원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고자 국민 70%에 1인당 최소 10만~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한다.

지원금은 위기 대응 역량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한다. 이들 외 나머지 70% 국민에는 다음달 18일부터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선별 지급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소득 기준 하위 70%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총예산은 총 6조1000억원이다.

신청과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지급 기간인 4월 27일~5월 8일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들 중 1차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과 그 외 70%의 국민은 2차 신청·지급 기간인 5월 18일부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이성오 기자

초대석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성장과 재정건정성 균형 이루는 데 힘 쏟겠다"

초대석
김원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위원장
"문화중심도시 광주, 시민 지지가 완성의 힘"

이달의 CEO
정대영 스톨액션 대표
페어암, 기방으로 재탄생
해당스레기 자원 순환

화제의 인물
오금석 (주)아생인더비 대표
꿀벌로 일군 50년,
한국 양봉의 길을 바꾸다

2026.04 vol. 155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략도인
구독문의:062)370-7080 광고문의:062)370-7070

전남의 보물섬
여수 손죽도
진달래 향에 봄소식 신고
화전에 봄의 풍류 담았다

포커스
여수산단 생산 차질 현실화...
중동 리스크 직격탄

전남 바이오 '제2창업'
국가 전략산업 도약 발판 마련
커버스토리

윤호열 전 전남바이오진흥원장
전남 바이오 '제2창업'
국가 전략산업 도약 발판 마련